

인스타그램으로 전하는
청년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

9X년생

이 책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용감한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꿈꿔 왔던 일을 하는 여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던 일을 안전한 노동 환경 아래에서 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성차별, 극한의 모멸감, 새로운 위협 속에 소진되며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의 여성노동자회가 함께 진행한 90년대생 실태 조사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쌍팔년도식 직장 문화'입니다. 90년대생이 태어나기도 전의 시간, 쌍팔년도. 많은 회사는 그 구시대의 유물처럼 고여서 변하지 않은 채 청년 여성들을 갇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함 속에서 고민하고 사유하며 연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대구여성노동자회는 아무 걱정 없이 노동자로서, 페미니스트로서의 고민과 생각을 터놓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특히 지난 3년간 인스타툰 작업을 매개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짧은 그림과 글이지만, 깊은 고민과 풍부한 사유의 힘에 보는 이의 공감을 무한대로 확장해 갑니다. 그 과정은 아마도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높은 밀도로 나누면서 웃고 울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때론 바닥이 보이는 투명한 물처럼 조심스레 나를 드러냈을 것이고, 듣는 이는 따뜻한 공감을 건넬졌지요. 작품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일상과 노동에 또박또박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편에서는 도란도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처에 주저앉지 않고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없는 응원과 지지를 온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용감한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희망을 향해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안숙영

대구여성노동자회의 작품집 <9x년생>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은 우리 삶의 현장이자 터전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3년에 걸쳐 12명의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대구여성노동자회의 소모임인 '페미하는 노동니즘'에서 함께하며 인스타툰을 매개로 각자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을 드러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9x년생>이라는 이름의 작품집으로 출간함으로써, 대구 지역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그동안 어떤 조건 속에서 일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에서 살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툰으로 전하는 그 저항과 연대의 메시지들이 모두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작품집의 출간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노동 환경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대구 지역에서 '청년'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수준, 잘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및 심각한 채용 성차별 등은 오늘날 지역의 노동 시장에서 청년 여성의 '노동자 되기'가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지역의 많은 청년 여성이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작품집의 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구여성노동자회의 작품집 <9x년생>의 출간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림작가 씨냉

제작년과 작년, 이 책의 작가님들과 수업을 함께하며 서로가 그린 만화로 크고 작은 공감을 주고받았습니다. 즐겁지 않던 경험을 떠올리며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괴로웠기에 오히려 유머를 섞어 풀기도 하면서 만화를 그리는 그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SNS에 게시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실제 공간에 전시된 곳에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으로 엮여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무척 반갑고 응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직장에서 나를 지키기란 영원히 쉬워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불합리함에 대해 따져야 하는지 또는 따지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숙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아예 눈을 돌리며 합리화해 버리는 순간들도 분명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수많은 불합리함과 맞닥뜨리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책은 일터에서 자신을 지키고 싸우는 사람들의 옆에서 그 고민을 함께할 것입니다.

작가님들에게 박수와 함성소리를 질러주세요

인스타툰 작가 호잇

인스타툰이란 웹툰처럼 스크롤 형태가 아니라 카드 뉴스 형태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만화입니다. SNS 계정에 업로드하다 보니 작가라는 문턱이 낮아져 많은 사람들이 만화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공동체나 당사자의 일화를 만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좋은 사례가 '인스타툰으로 전하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9X년생>'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썬 사연들을 인스타툰으로 전시도 해 보고 작품집으로 만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만화를 만들기 위한 배움과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스토리로 만드는 것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해보자'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이 노고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 과정의 일부분을 본 저로서 박수를 치고 환성을 외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고생했고 축하받아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이 만드셨던 작품의 초안과 완성작을 보며 애쓰신 흔적을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침언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품을 발전시키며 최종본들이 작품집에 담기니 저도 괜히 뿌듯해집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쳐 만든 작품집과 이 인스타툰들이 많은 당사자와 개인에게 전달되며 공감과 위로를 선물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작품집을 시작으로 작가님들의 개개인의 연재와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집을 보며 그림이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부터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이 책의 값진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의 이야기와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님들은 마음껏 박수 치시고 호호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호잇

목차

9X년생, 우리가 만난 세상

이음 14

그꾸 16

옥수수 18

햄식이 20

오하 22

니니 24

명량녀 26

토리 28

묵은지 30

볼따찌 32

제이지 34

간장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그꾸 40

옥수수 42

햄식이 44

오하 46

토리 48

묵은지 50

참가자 소감 52

관람객 후기 60



차별에 균열을, 노동에 성평등을!

대구여성노동자회는 2018년 청년여성 소모임 '폐미하는 노동니즘'을 만들어 청년여성노동자들과 성평등 노동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할지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수다회도 하며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동의 교차성을 고민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특히, 불합리하고 불편하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제제기하면 유별나다는 취급을 받는 직장 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여성노동자들이 지역에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구지역 직장 내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를 써서 '소리를 내기 위한 스피커'라는 이름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직장 내 존중문화를 위한 10가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특히, 청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주목받지 못하고 삭제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에서는 2021년 90년대생 청년 여성들이 겪는 노동과 삶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자 21명을 심층 면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문문을 만들어 전국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774명이 설문문에 응답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대구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실업률이 높았고, 임금수준은 낮았으며,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성차별 또한 전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대구의 노동환경을 수치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구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어떻게 하면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폐미하는 노동니즘'에서 인스타툰을 그려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손 쉽게 그릴 수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쉬워 보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2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인스타툰을 그렸습니다. 인스타툰 그리

기 강의부터 시작해 각자의 노동이력을 써보고, 직장상사와 일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방어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노동경험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회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적 노동경험들은 각자가 해결할 것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시회는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연대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작업을 우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작품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노동이 삭제되지 않고 곳곳에 알려져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고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방어훈련



노동이력 써보기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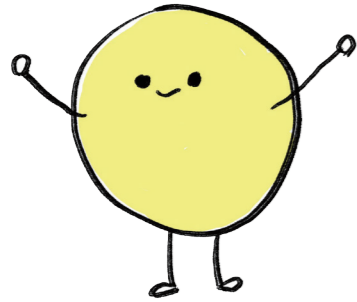


인스타툰 그리는 과정

9X년생,
우리가 만난
세상



*작품 밑의 글은 인스타툰 전시회 당시 관람객들이 남겨준 댓글입니다.



이응

복잡한 세상 둥글고 편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오늘도 둥글게 살아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동그라미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이응의 일상

머리를 잘랐다



수 많은 소리를 들었다



↳ '머리 바꾸니까 어때?', '짧은 머리로 잘 어울리네', '기분 전환 제대로 됐겠다!', '마음에 들어?'

시간이 좀 흘러서는



↳ 고작 머리카락이 길고 짧은 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언제쯤이면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일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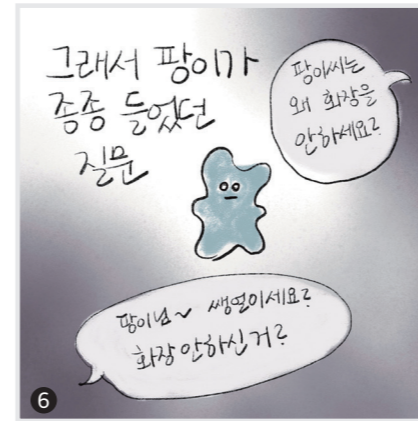
↳ MY HAIR MY CHOICE

↳ 50대가 눈앞인데 나의 20대에 만연하던 외모 평가, 지적이 아직도 만연한 이 사회에 안타깝다. 바뀌 보자! 목소리 내어~



그꾸

곰팡이 형태로 나타난 페르소나 팡이.
부질없음에서 그러려니로 넘어가는 중?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루 해가 지지만,
그래도 내일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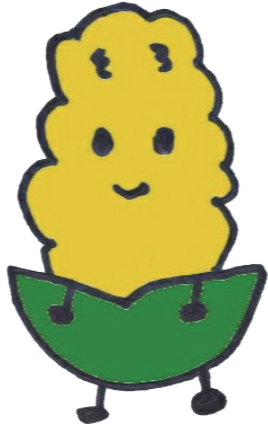
↳ 저도 화장 안하는 중. 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쓸 수는 없지요

↳ 스티브 잡스도 매일 같은 옷만 입었는데 이런 말들을 들었는지 궁금함.

↳ 보통은 '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화장은 왜 '안 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궁금해할까?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남의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그죠?

↳ 팡그르르팡! 그꾸작가님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만 그꾸님 곁에 있길 바라요.



옥수수

초당옥수수를 좋아함.

언젠가 팝콘처럼 활짝 피어날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음.

옥: 옥죄어 오는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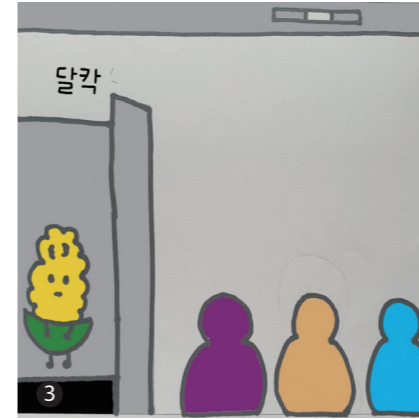
수: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1 옥수수야! 졸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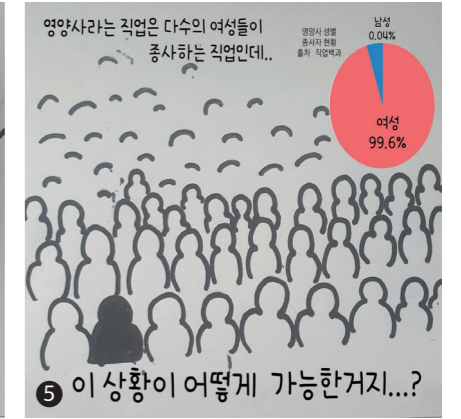
2



3



4



5

1 의욕을 없애버리는 3인방

2 면접 볼 땐... 이제 여성 한 명이라도 있으면 휴... 하게 돼요.



6

3 도대체 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은 왜 하는 건지 이해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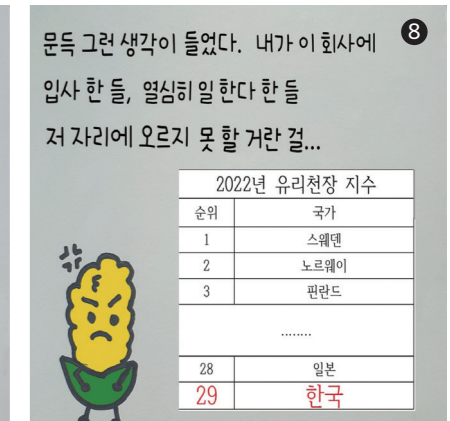
4 그게 업무랑 무슨 상관인데! 너무 공감해요.



7

5 사회초년생이라 더 이런 불쾌한 언사들을 참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저런 말 듣고 가만 있지 않을 텐데... 젊은 여성들을 뭘로 보는건지...

6 나도 느꼈던 면접이 끝나고 난 후 드는 자괴감, 허탈... 힘내자!!! 그리고 바뀌나가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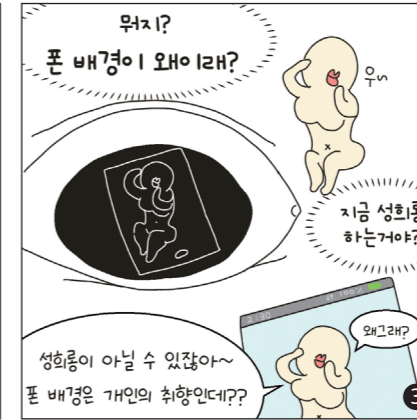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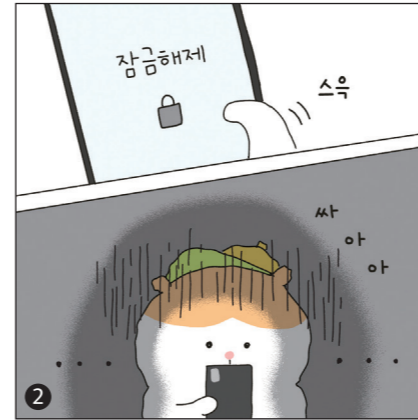
7 여초직업이어도 참... 직급이 높은 사람은 왜 남성들뿐인지... 더 많은 여성임원들이 있길 바랍니다!

8 누가 성평등시대라고 외치는가. 현실은 아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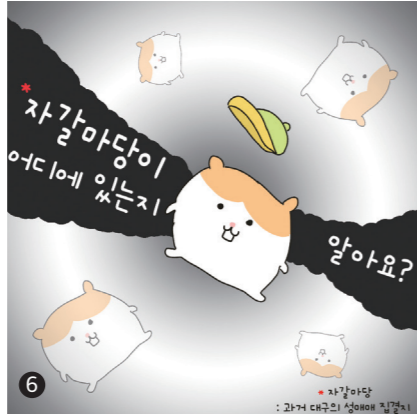
| 순위 | 국가 |
|-------|------|
| 1 | 스웨덴 |
| 2 | 노르웨이 |
| 3 | 핀란드 |
| | |
| 28 | 일본 |
| 29 | 한국 |

햄식이

덩치 큰 기니피그가 되고 싶은 햄스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걸 좋아하지만
 어쩐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화만 많아졌다.
 화나는 사건들 사이로
 어찌저찌 살아가는 중



↳ 돌려 성희롱ㅠㅠ 갈수록 교묘해지는...
 ↳ 정말 똥이네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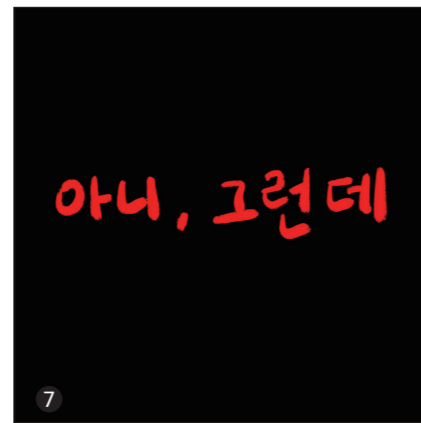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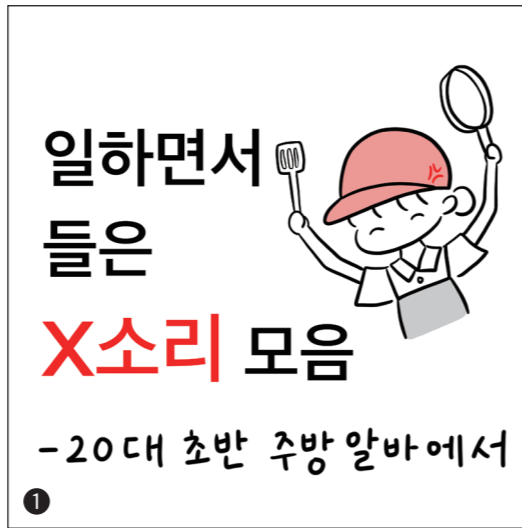
↳ 햄식이ㅠ 아자!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안나오네요. 저런 이상한 사람들은 햄식이 일상에 없어서 버렸으면!
 ↳ 카페에서 종종 알바하며 겪었던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너무 화나네요. 그때의 무서움과 당황스러움이란ㅠ.ㅠ

↳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게 성희롱인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젠더 불평등인 것 같아요ㅠ
 ↳ 청년, 특히 여성노동자가 젤 약자인 듯... 안전하게 일하고 싶네요.



오하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하루.
그 하루를 살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그립니다.
오늘도 쉽지 않았겠지만
잘 살아낸 모두들 멋진 사람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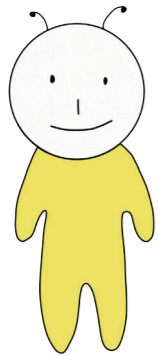


↳ 건전한 사내문화가 당연한 것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 잘못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말에 왜 웃었지?' 나를 자책하는 순간이 싫어요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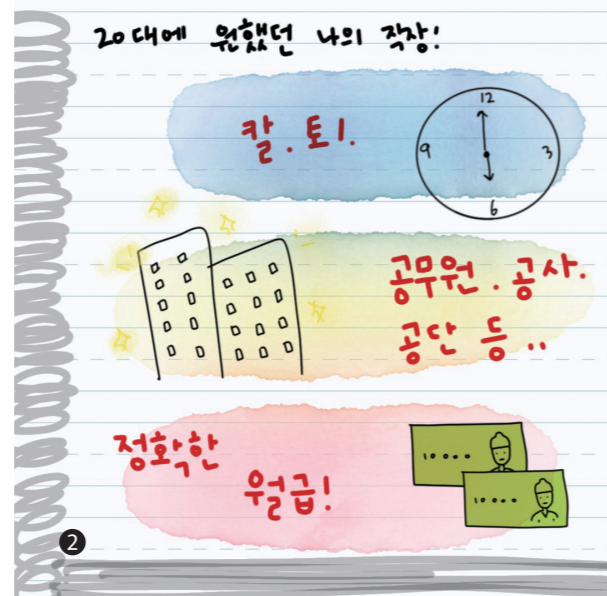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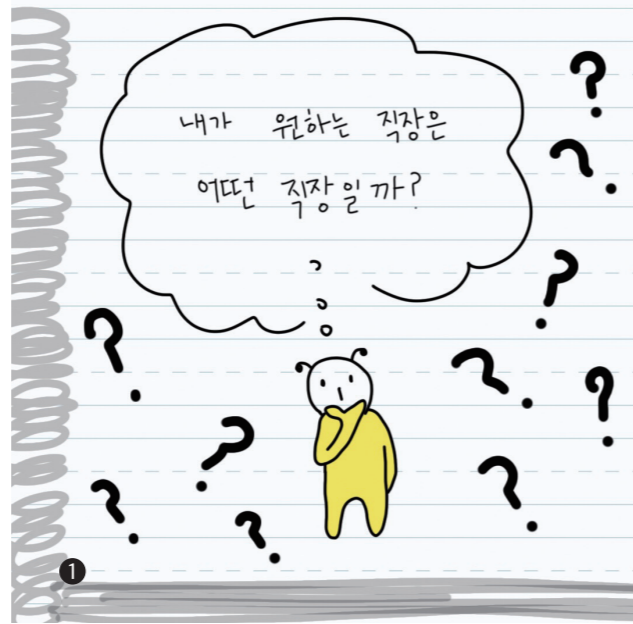
↳ '그런 말에 웃지말 걸'이라는 죄책감 아닌 죄책감... 그거 알 것 같아요ㅠ-ㅠ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나구요-!

↳ 같은 여성노동자로서 넘 공감가는 내용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 받지 않고 기분 좋은 날만 지속되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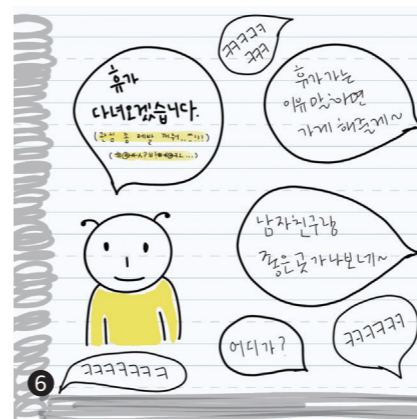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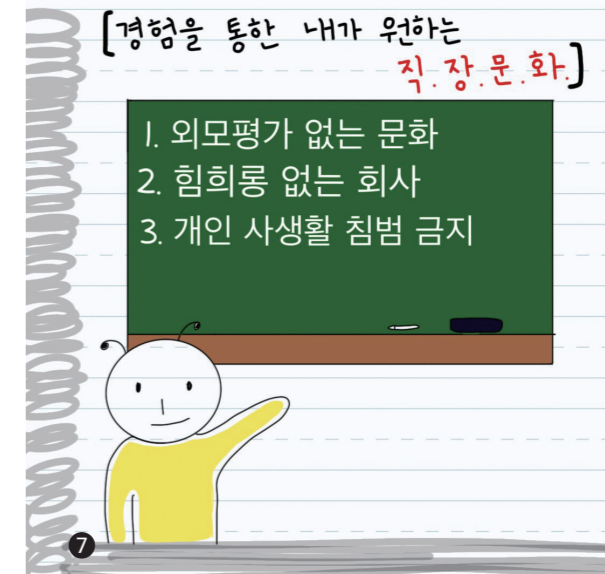
몸도 마음도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일개미의 생존일기!
자유와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



└ 내 맘이야.
└ 내 외모에 관심 좀 꺼줄래!



└ 쉬러가는 사람 쿨하게 보내주어소~
사생활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 끈대들 사이에서 열심히 버티는 일개미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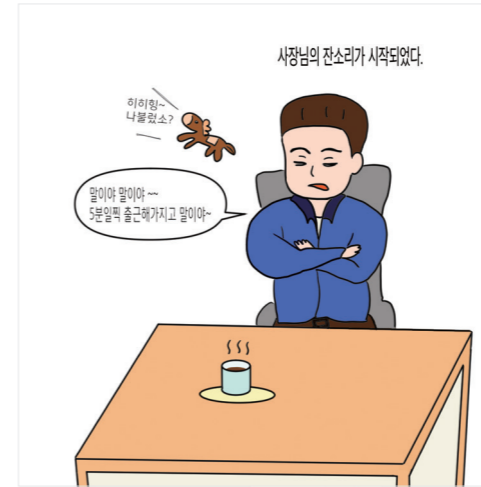


└ 차별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명랑녀

마음이 어려서 상처도 받지만,
언제나 훌훌 털고 일어서는 밝고 명랑한 여자.
명랑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다.
나의 경험을 살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프다.



↳ 일찍 출근하면 돈 더 즐겨?
↳ 이상한 관례 같은 거 만들지 마!



↳님이 진짜 센스가 없는 듯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본인이 좀 해라! 제~발~
↳상사가 커피 태우는 미덕이 좀 있으란 말야~



↳ 말도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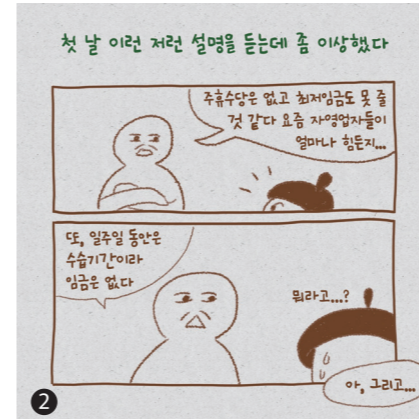


↳ 나도 여기 같이 있어요

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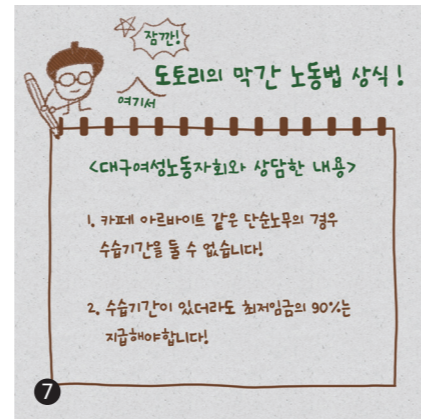
대구여성노동자회의 활동가이자
청년여성노동자로 데굴데굴 구르며
부딪혀 보는 중이다.
겉은 많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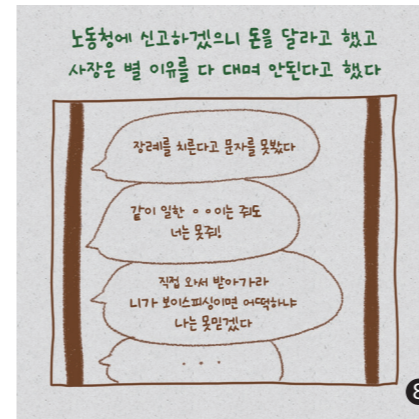
↳ 수습기간인데 왜 돈을 안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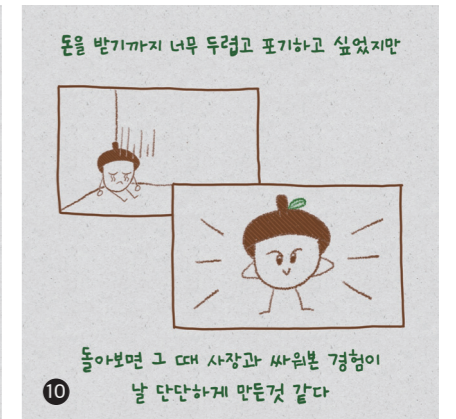
↳ 신고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 찢리는가베 아재요^^
↳ 본인이?ㅋㅋ



↳ 넘 유용해요 꿀팁!



↳ 보이스피싱ㅋㅋ 어이없어. 이편 왜 이렇게 사장이 커보이고 무서웠는지.



↳ 이제는 알아요. 상사던 사장이던 X소리에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뽕이다!



묵은지

아직 직장에서는 햇김치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묵은지가 될 때까지 버텨보고 싶다.
험난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살아남고 말 것이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된다면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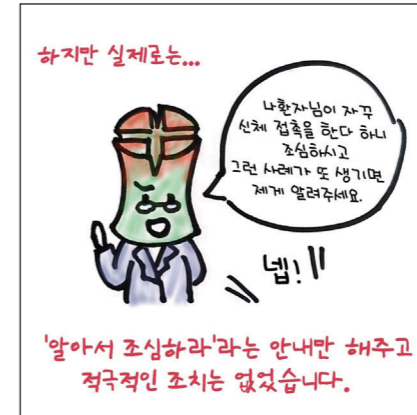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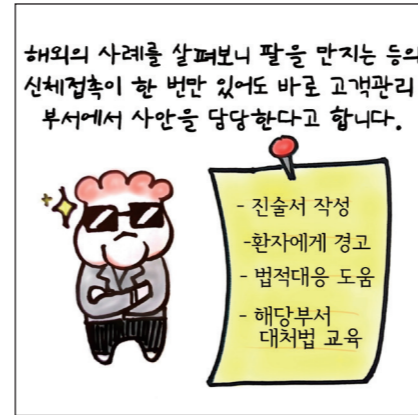
저는 몸이
아픈 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ㄴ 아 정말 화나요!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 언제 올까요?



ㄴ 병원에서도? 여기서요?? 지금요??? 혈



ㄴ 아 정말 싫다. 관리자가 왜 있는 건지... 도대체 그 역할은?
ㄴ 아 짜증나 알아서 어떻게 조심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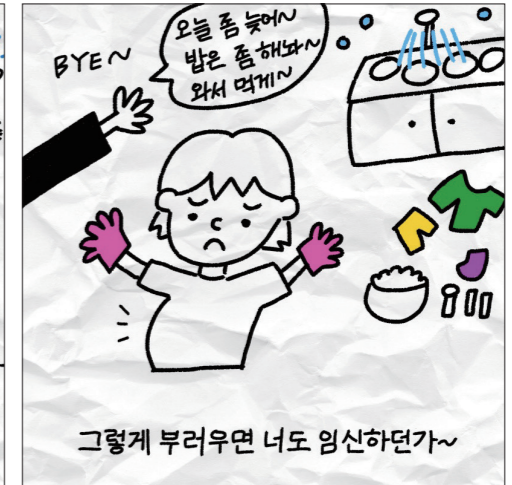
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ㄴ 빨리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ㄴ 참...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분들의 이런 고충, 알면서도 외면하는 정부! 개선이 필요합니다.



볼따저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생각을 하며
긍정적으로 삶을 지향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쉽게 볼 곳은 아닌 것 같다.
어려운 세상과 맞서 살아가보자!



- ㄴ 현대과학 힘내!!
- ㄴ 임신, 출산, 육아가 쉬는 거라뇨~ 부러우면 댁도 노력해서 꼭 이루길!



- ㄴ 왜 괜한 데에 말도 안되는 시비를... 근 본적인 걸 들여다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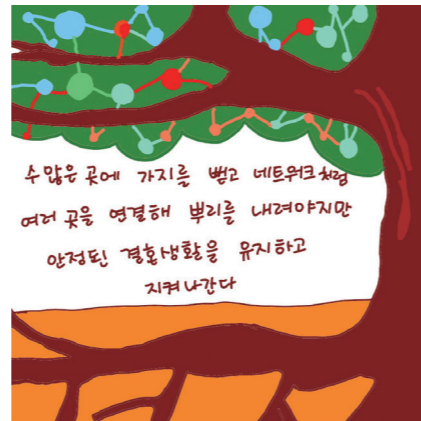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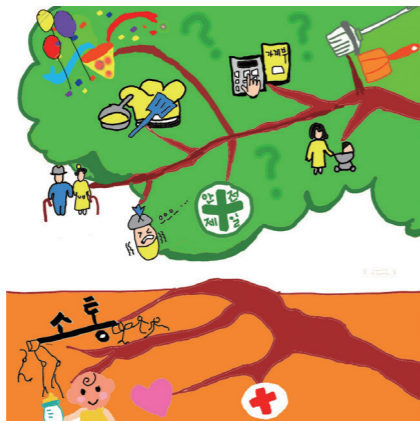


- ㄴ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응?
- ㄴ 생각할 줄 모르는 것 진짜 싫어ㅠ



제10기

세상에, 그리고 한 작은 울타리에
뿌리 내리기 위한 전업 주부의 바쁜 삶.
그럼에도 의미있는 직업이라는
희망을 안고, 오늘을 살아냈다.



나 나의 완성과 세상의 완성은
떨어질 수 없죠!



전업주부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이런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같아 속상해요.

집안일도 '노동'으로 인식되고 존중받는 그날까지! 전업주부는 모든 노동의 밑바탕이자 뿌리라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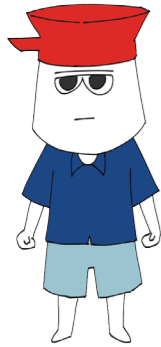


여기 쓰여진 모든 말들, 직접 들었던 멘트들이네요. 이런 차별들이 없어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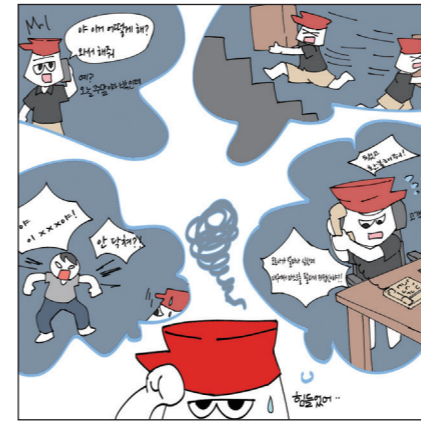
사회의 필수노동인 돌봄노동! 우리 자부심을 가져요♡

돌봄노동도 값진 노동인데 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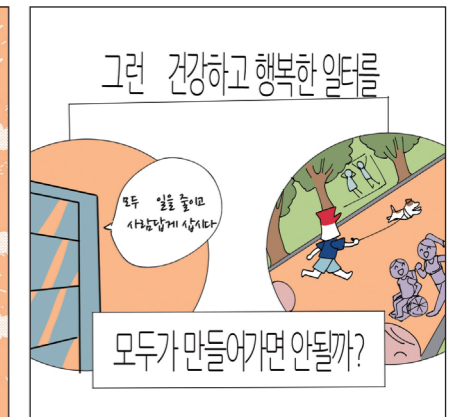
간장

꿈 : 건강하고 활기차게 행복한 삶 살기
아직도 갈팡질팡 헤매는 삶이지만
그것조차 괜찮다! 하고싶은 걸 알아가고
내 적성을 찾아가는 인생의 모험 중!



↳ 장소만 바꾸고 상황은 똑같다는 게 슬프고 답답하네요ㅠㅠ

↳ 너무 당연한건데 당연할 수 없는 현실...



↳ 간장 작가님, 다양한 직업군 그려주셔서 감사해요♡

↳ 누구나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 주4일제 가보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힘난한 직장생활

성희롱·성폭력 목격자라면!

이름: 팡이
 특징: 많은 눈으로 주변 악당을 처단한다
 정체: 열심히사는 공팡이

에이~ 월급 깎아주고 고쳐~ 따가 들어가서 고쳐 ♡

없었으면 하는 #@\$XX 스투온 상황을 마주했다...

미친거아님??!

손을 어디 올려?

행동3 기록남기기

오늘날 내팡이 퀴~ ♡

아오! 지옥가라!

2024. 9. XX.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안전한 상황에서만 기록물의 활용은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동4 사후게임

저... 조금전 그 상황을 보게 됐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나요?

기야호~ 요리를 꼭꼭꼭 먹어야아호!

뭐인이야!

재깡깡

행동1 주의돌리기

이럴때 팡이는 참지.얌아.

행동2 도움요청

해냈~♡ 그만해 제발...

팡이씨?

저쪽에 도움이 필요해요!

알른요!

그건 괴롭힘이에요! 그만!

나와 피해자 모두 안전한 상황에서

행동5 직접대응

갑작이야!

행동하는 목격자의 힘이 전망을 희망으로

< 효과적인 목격자 개입 방법 5D >

1. 주의돌리기 Distract
2. 도움청하기 Delegate
3. 기록남기기 Document
4. 사후게임 Delay
5. 직접대응 Direct

알아드 십사다 팡팡!

*Hollaback의 5D 전략 참고



1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해 절대 안정하세요.

헉!! 임신?!

2

나...계약직인데.. 임신해도 되는걸까? 분명 지난 면접때...

3

<입사면접>

옥수수 지원자는 기분이네요? 우리 회사는 임신하면 퇴사입니다.

옥수수 휴직 NO!

4

썩 뭐라고?!! 당장 그만둬!

저 임신으로 인하여 평가 신청하겠습니다.

5

사직서

출산휴가 No!

이럴수가.. 어찌지..

6

그래도.. 혹시 날 도와주지 않을까?

여성 노동자외

Help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7 2021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8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알게요!

9

그리고 나는 맞서 싸우기로 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

민원 신청하기

변호사 자문 구하기

공문

회사에 협조 공문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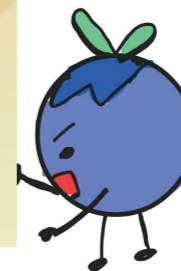
10

당장 해주지 못할까?

승인해줄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대구와 같은 중소기업이 많은 지방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을 강요받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 함께 지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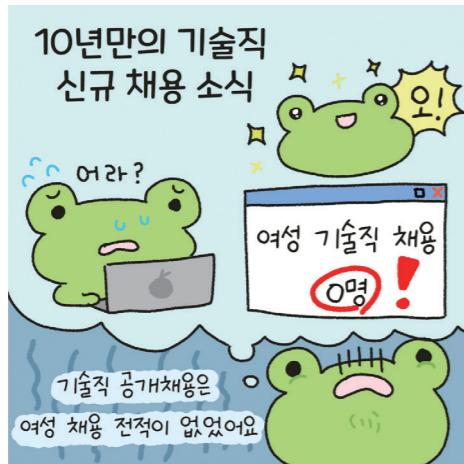
햄식이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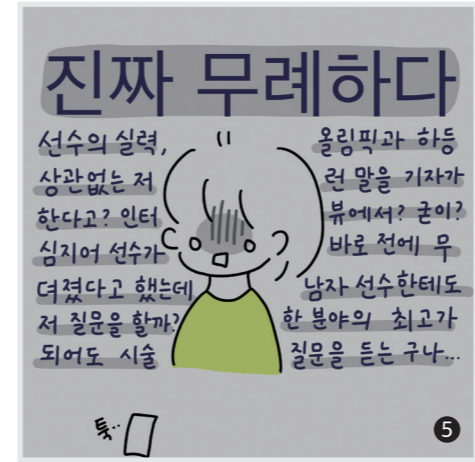
8



9



파리 올림픽을 보다가 한 선수의 팬이 됐다



어릴 적 크게 넘어져서 생긴 얼굴 상처를 본 어른들의 말이 생각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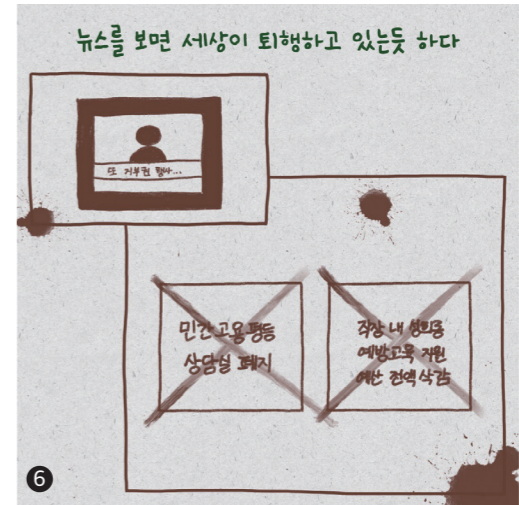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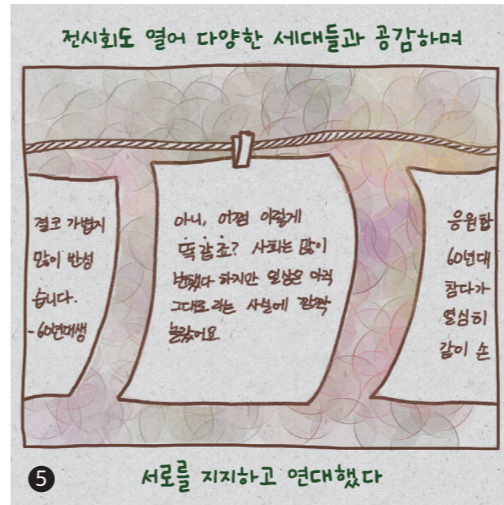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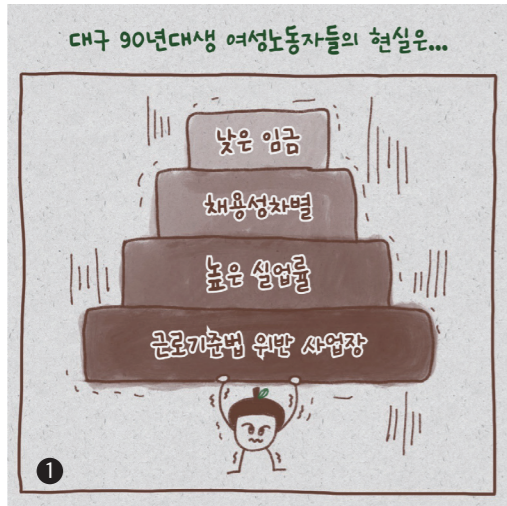


여성의 외모는 쉽게 평가대상이 되고 평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뉘어져서 차별은 단단해진다



웃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꽤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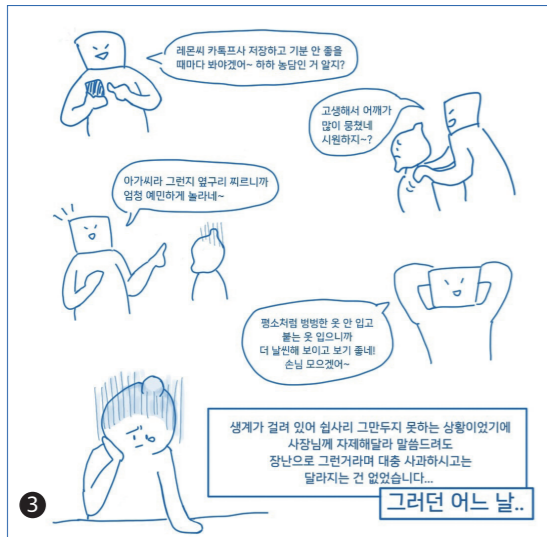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는 만화

안녕하세요?

라떼 한잔 드시고 가시는 거 맞으세요?

저는 카페에서 근무한지 5개월이 된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5

저는 조연대로 지역 내 노동자상담기관에서 심리정서 치유 상담을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와중에 사장의 성추행이 다시 발생하였고, 저는 더 이상 사장을 마주할 수 없어서 휴가 신청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는 동안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및 경찰 고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자책, 힘들고 오래 걸리는 절차 등으로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상담소 직원 분들을 비롯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있어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6

노동부 진정

형사고소

↓

성희롱 인정

↓

승소

이 결과는 상담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살펴보면 '20~30대, 1년 미만, 비정규직' 일수록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 | |
|-------------|------------------|
| 1. 연령별 비율 | 2. 근속연수별 비율 |
| -20대: 30.2% | -1년 미만: 39.7% |
| -30대: 32.2% | -1년~3년 미만: 30.8% |

⇒ 20~30대 62.4%, 3년 미만 70.5%

8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지역 여성노동자회 상담기관' '여성긴급전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주며, 상담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치유, 법률 자문까지 연계해 주기 때문입니다.

9

특히 성희롱의 경우는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처음 수사기관 방문 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받고 가는 것이 더욱 좋겠죠?**

10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를 원해요!

평등한 직장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요!

가해자는 처벌, 피해자는 일상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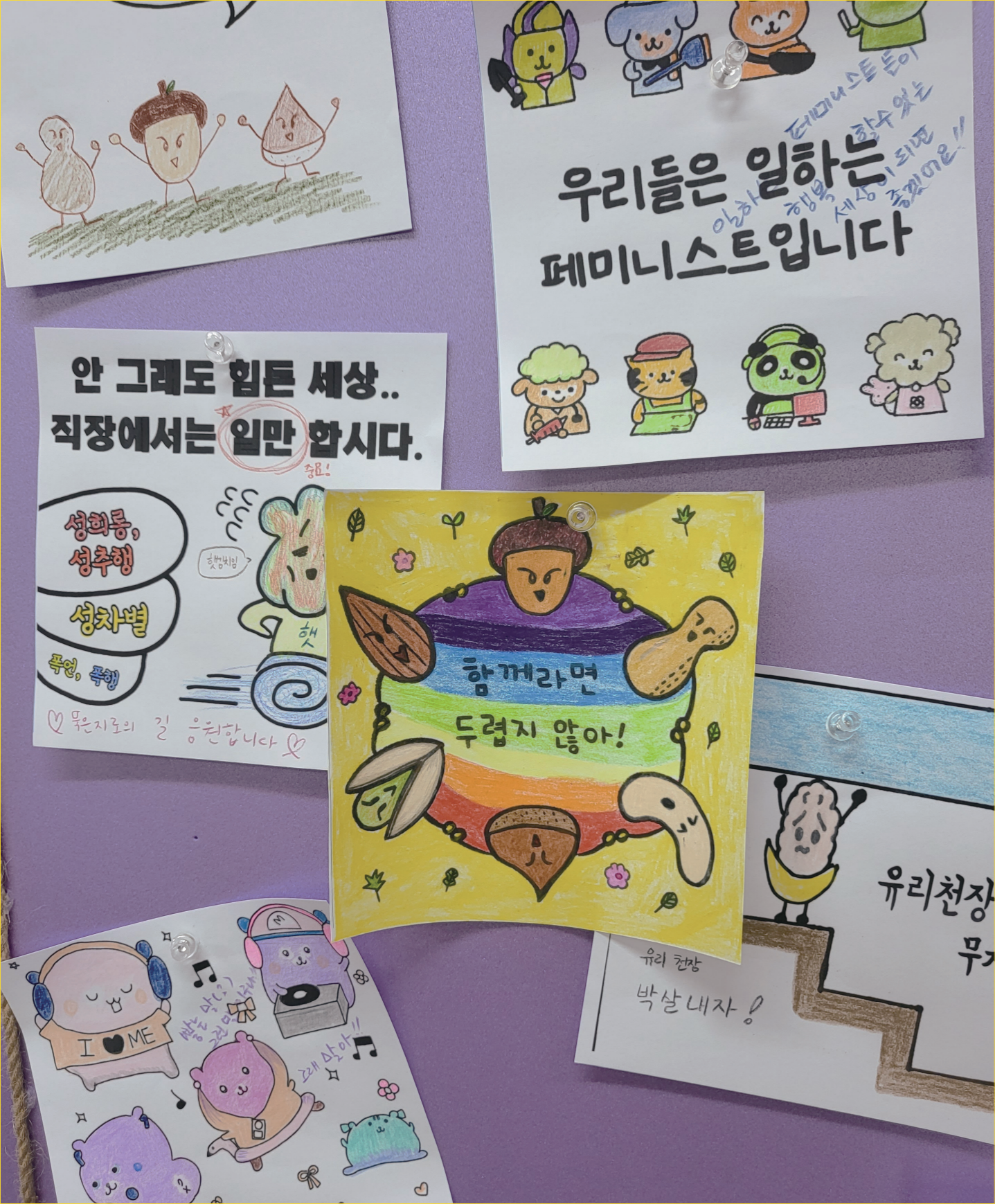
바뀌어가는 세상은 더딜지라도 함께 나아가요!

이음

인스타툰이라는 수단을 통해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알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림에도 버티고 있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그꾸

인스타툰 그리기에 참여하면서 대구여성노동자회 활동을 더 접하고, 함께 그리는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만화적 표현 방법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신 작가님과 프로젝트를 이끈 토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전보다 나아졌을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혼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있음이 인스타툰을 통해 전해졌으면 합니다.





독수수

이번 기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주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든든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뀌어가는 세상의 모습은 비록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응원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품을 기획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햄식이

인스타툰 활동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게 되었고 여러 여성노동자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차별이 만연한 사회라서 속상하지만 차별을 이겨낸 사례들을 읽어보니 앞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툰을 혼자서 시작했다면 막막하기만 했을텐데 세부적인 지도와 여러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하니 한결 수월하게 완성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스타툰 기획을 끝까지 열심히 이끌어준 토리님에게 감사합니다~



오하

성차별을 주제로 인스타툰을 그리면서, 제가 경험한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를 꾸준히 다루고, 다양한 젠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 인스타툰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변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니

저의 이야기들을 페노에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각자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책으로 나온다니 너무 벅찬 순간입니다. 처음에 도전할 때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인스타툰은 재능있고 타고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페노 회원들과 으샤으샤하고 씨냉선생님의 지도로 전시도 열고 작품집으로도 나오게 된 거 같습니다. 우리 회원들과 씨냉선생님 감사합니다 :)



명랑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인스타툰을 같이 공부하고, 각자 일하면서 느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배웠던 점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했던 부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무심경하게 생각했던 부분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2023년 인스타툰 전시회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대구여노에 감사합니다.



3년간 인스타툰을 그리고 진행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학창시절 미술 수행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던 제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회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 신기합니다. 특히, 전시회에 다양한 세대가 남긴 댓글을 보며 연대와 지지가 눈으로 보이던 순간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틈틈이 대구여노 계정으로 인스타툰을 그릴 생각이니 기대해주세요!



인스타툰 활동을 하면서 전문 작가님에게 인스타툰 그리는 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만화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다음에는 이런 성차별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보신 다른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위로도 되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의 인스타툰을 보며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참고



한 만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만화를 그리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및 신고, 대처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해 이전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이번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실력으로도 인스타툰을 잘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인스타툰 강의를 제공해주고, 전시회까지 열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엔 이게 될까? 싶으며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작품집까지 낼 수 있었던 것에는 저 포함 같이 제작해주신 많은 분들의 용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추억을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10 |기

사회에서 여성으로써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써 당연히 느껴야하는 사회적 부당함과 무관심이 당연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스타툰을 그리면서 참가자들과 같이 마음의 짐과 무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툰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회의 여러 강의와 전시회 등이 삶의 회복이 필요한 여성들의 휴식처이자 안식처로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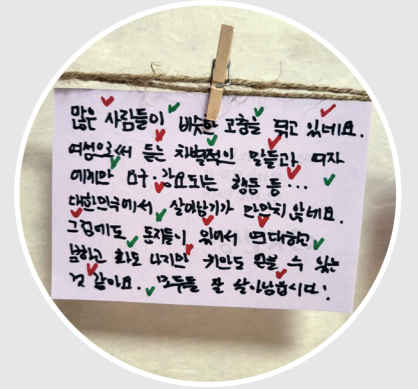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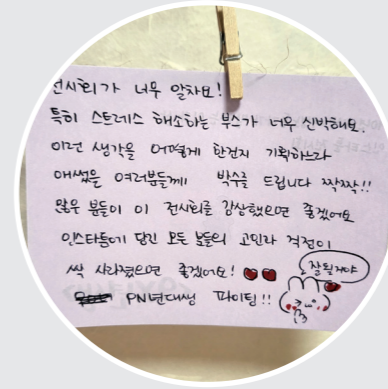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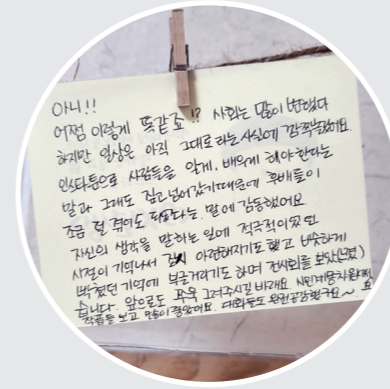
간장

인스타툰 강의와 전시회에 참여하였던 간장이라고 합니다. 제 삶의 경험을 직접 그려보고 이 경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때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했던 경험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객 후기

2022년, 2023년에 진행한 인스타툰 전시회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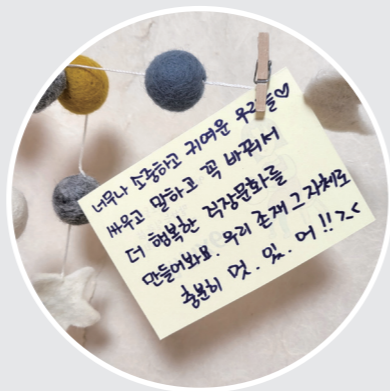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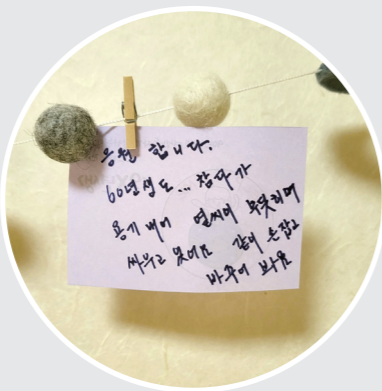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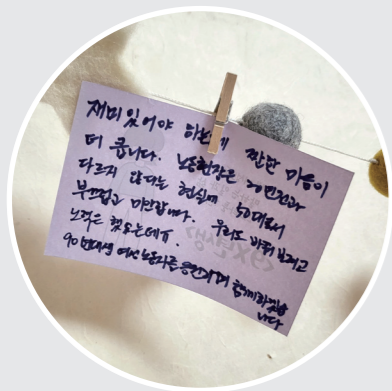
- 응원합니다. 60년생도 참다가 용기내어 열심히 부딪히며 싸우고 있어요. 같이 손잡고 바꾸어 봐요.
- 너무나 소중한 귀여운 우리들♡ 싸우고 말하고 꼭 바뀌서 더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봐요.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멋있어!!
- 재미있어야 하는데 짠한 마음이 더 큼니다. 노동현장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현실에 50대로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우리도 바뀌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ㅠ 90년대생 여성노동자를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 아니! 어쩔 이렇게 똑같죠?! 사회는 많이 변했다 하지만 일상은 아직 그대로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인스타툰으로 사람들을 알게, 배우게 해야 한다는 말과 그래도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후배들이 조금 덜 겪어도 되었다는 말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었던 시절이 기억나서 잠시 아련해지기도 했고 비슷하게 빠졌던 기억에 부글거리기도 하며 전시회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욱 그려주시길 바래요.

- 전시회가 너무 알차요! 특히 스트레스 해소하는 부스가 너무 신박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한건지 기획하느라 애썼을 여러분께 박수를 드립니다. 짹짹!! 많은 분들이 이 전시회를 감상했다면 좋겠어요. 인스타툰에 담긴 모든 분들의 고민과 걱정이 썩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9N년대생 파이팅!
-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네요. 여성으로서 듣는 차별적인 말들과 여자에게만 요구, 강요되는 행동 등...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럼에도 동지들이 있어서 연대하고 분하고 화도 나지만 위안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잘 살아남읍시다!
- 차-암 좋은 자리, 자료 너무 고마워요. 많은 도움이 되어요. 60대 엄마
-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많이 반성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60년대생
- 저는 흔히 말하는 여초직장에 다니고 있는 9n년생 노동자입니다. 거의 공기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차별적인 근무환경에 좌절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시예요♡

- 전시된 대화 영상을 보다가 “애는 언제 낳냐? 결혼은? 남자친구는?” 등의 질문 세례가 “할 말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셨던 데에 공감 많이 되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내가 아닌 ‘여자’한테기에 쏟아붓는 질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관심인 척 하지만 ㅎㅎ 관심을 표할 거라면 “너에게 탑재된 ‘여자’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니?”스러운 질문 말고, 뭘 좋아하는지, 요즘 사는 건 어떤지 같은 질문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사람이고 그 다름을 알아가며 즐거워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말이다.
- 멋진 전시회! 모든 사회초년생들 파이팅! 9X년생 파이팅! 우리를 MZ세대라는 틀로 가두지 마세요!
- 깊은 감동, 적잖은 성찰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어 고맙습니다. 말해주어, 지금, 우리, 연결됨에 감사드립니다.
- 삶이 ‘작가’가 되었네요! 영상보며 웃고, 눈물 찼끔, 가슴 먹먹 참여해주신 분들의 솔직, 용감한 이야기들이 넘 감동, 통쾌하네요. 넘 고맙습니다. 꼭 작업 이어가시길!
- 아이고 어떻게 70년대생인 제 시대랑 변한 게 없는지! 화도 나고 ‘당연한’ 직장 환경을 만들

어주지 못한 미안함도 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직장문화가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해요! 더 이상 참지 않기!

- 응원합니다. 너를, 나를, 그리고 우리를. 말하는 용기에 박수를. 잘했다고 잘건디었다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 사실 오늘도 뉴스 보고 욕만 하다가 왔는데 좀 숨통이 트이고 여성들이 살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페미니스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는데 이번 자리를 통해서 나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따뜻함을 얻어갑니다.
- 라떼는 같은 이야기 같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지냈던 일상들이 이렇게 주목되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여성노동자회에서 실태조사부터 지금 이 전시까지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 파이팅!
- 개인의 이야기지만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긴 싸움이지만 풀뿌리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 이겨나가요! 언제나 서로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 귀찮지만 목직한 울림이 있었어요. 일하는 가치와 평화가 깊고 넓어지길 바랍니다.
-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에게 닿기를~! 대구여노 멋집니다!^^
- 개인적으로 빵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삭이거나 술자리 안주용으로 생각했던 것을 공론화하고 많은 동지들과 나누니, 더이상 이런 문제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함께하면 든든하니까 같이 파이팅 해봐요! 투쟁! 아자아자!
- 여성의 일상, 삶, 노동에 대한 이야기 잘 봤어요. 보는 이들보다 함께 얘기하고, 그러면서 더 즐거웠을 분들을 생각하니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모두 파이팅.



인스타툰으로 전하는
청년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

9X년생

발행일 | 2024년 10월 30일

발행처 | 대구여성노동자회

이메일 | dgwwo@hanmail.net

전 화 | 053-428-6338

디자인 | 디퍼플

이 책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스타툰 작품과 캐릭터의 저작권은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작가 개인에게 있습니다.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